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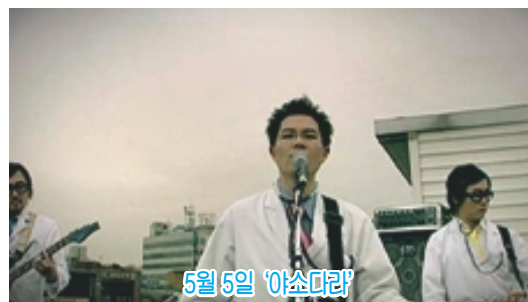
三日三色 '찬불'



이중만 정유탁



지허스님 강혜운



이진호

산 사음악회의 기세에 밀려 공연장 음악이 주축한 요즈음, 3일동안 세 팀이 출연해 찬불가를 음성 공양하는 이색 무대가 열린다. 봉축기념 붓다콘서트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조계종 총무원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출연팀은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 (5월 3일), 불음포교단체인 '연꽃의 소리' (5월 4일), 불교음악 그룹 '야소다라' (5월 5일) 등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찬불동요, 찬불가, 대중코드와 록 등 다양한 장르로 불교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3일= '좋은 벗 풍경소리'가 봉축 음악회 '붓다콘서트'의 문을 연다. '좋은 벗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이중만씨를 비롯해 정유탁씨 등 그동안 풍경소리를 거쳐간 수많은 찬불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그동안 발표한 찬불동요 창작곡 1집에서 23집까지 중 하이라이트를 묶어 선사한다. 이외에도 연등축제의 주제곡인 '오늘은 좋은날'을 비롯해 '축제' 등을 부른다.

지난 11년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불가 보급에 앞장 서 온 '좋은 벗 풍경소리'는 올해 찬불가의 대중화 작업과 찾아가는 문화포교 활동을 목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봉축기념 '붓다콘서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5월 3일~5일까지

△5월 4일= 공군교역사령부 등 군부대 등에서 활발한 포교를 하고 있는 '연꽃의 소리'가 들깨날 무대를 꾸민다. 불교방송 심야프로그램 '붓다의 노래'에 출연중인 불자가 수 강혜운씨와 안산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이 출연한다. '연꽃의 소리'는 지난해 4월 강혜운씨와 지허 스님이 함께 '패랭이꽃과 나그네' 음반을 발매하면서 본격적인 불교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음반은 청소년층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함께 듣고 부를 수 있는 불교 음악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허 스님이 수행의 마음을 담은 불교적인 노래를, 강혜운 씨는 불교 색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노래를 환상적인 하모니로 선사한다.

지허 스님은 "이번 공연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즐길 수 있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 5일= 내과 의사이자 찬불가 가수인 이진호씨가 결성한 그룹 '야소다라'가 무대를 재운다. '야소다라'는 락음악을 하며 음악은 비트가 있으나 결코 시끄럽지 않고 진솔하게 서정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10년 전 인디밴드 '야소다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진호씨는 그 이름이 좋아서 '야소다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적인 강안코드와 록(Rock)으로 만나야 야소다라의 무대는 넘치는 열정과 화려한 사우팅(shouting)으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붓다콘서트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야소다라의 음반 'Screaming Buddha(붓다를 외치다)'와 'Change the World(변화하는 세상)'에 있는 곡들이 선보인다. 음악성을 가진 뮤지션보다는 돈으로 만들어진 상품만 있는 대중음악계 현실을 노래한 '음악은 죽었다'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춤을 추자는 내용을 다룬 '절벽 위에서 춤을 추어'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리듬감을 느껴볼 수 있다. 종교화합을 노래한 '평화의 노래', 록발라드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며 현대를 살면서 돈과 물질이 아닌 진리 즉 내면을 찾아가는 마음을 그린 '구도심' 등을 부를 예정이다. 재즈카바레미 작 편곡과를 졸업하기도 한 이진호씨는 재즈, 뉴에이지, 포크 음악을 크로스오버한 대중 불교음악을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www.onket.com, (02)723-9836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탈속 경계 넘어서 禪畫일치

불화장 석정 스님 '연묵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이 평생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불화> 40권 완간을 기념하는 '석정 연묵전'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연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선사화 300여점, 선사화는 무심의 상태에 든 수행자가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그림과 글씨를 말한다. 따라서 전시 작품들은 이 시대 최고의 불모(佛母인) 석정 스님이 즉흥적 영감과 흥취를 그림과 글씨로 나타낸 것으로 선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스님의 독창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다. 전시품들은 부처님을 비롯해 불보살, 달마, 소를 탄 동자, 포대향상, 한산승주, 일원상에서부터 연꽃, 해바라기, 난, 송월, 대구 등 다양하다. 또한 전시작품 아래에는 작품 속의 글씨와 해제내용을 함께 적어놓아 관객들이 선사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의 작품세계는 흔히 '이서도인(以書道人:그림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 '선화일치(禪畫一致:선과 그림의 합치)'의 경지로 일컬어진다.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은 '석정 스님의 경지는 선화일치의 무매경을 표출해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문득 천진무구한 동심세계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詩講로 떠나는 임지기행 ⑨

오대산 염불암

너희집 추녀 밑에는 한강의 머릿물인 우룡수(雨龍水)가 솟는데요 노스님 읊어대는 염불에 맛이 들려 툇툇포로록 툇툇포로록 장단가락 배기듯 방울방울 떨어져서 강줄기를 이루는 쇠간수가 있는데요 그 물빛 수정처럼 맑고 고요해서 부처님께 한 사발 떠다 올리면 증생들의 꽃이니 손저리 말라시켜 슬며시 내려놓곤 하신다네요.

장인성 시인



염불암(念佛庵)-오대산 서대에 자리한 암자로 한강의 시적인 우룡수가 솟고 있다. 그림·이성배 화백

조계종 여장 동주 스님 영산재 시연

조계종 여장(魚丈)인 동주 스님이 한국전통불교음악의 본산인 하동 쌍계사에서 4월 21일 오후 1시 영산재 시연을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는 불교의식인 '재(齋)'를 올릴 때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 정가, 판소리와 함께 3대 전통 성악으로 꼽히는 귀중한 음악유산이다.

이번 공연에서 동주 스님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화엄경>을 쓰실 때 하늘에서 현인들이 꽃을 날리고 음을 연주할 때를 회상해 상징화한 정중동(靜中動) 미학의 결정체인 '영산작법'을 보여준다. 또한 영산재를 올릴 때 도량을 옹호하기 위해 신중을 청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 영산 회상 불보살님께 차공양을 올리는 '영산다계(靈山茶觸)' 등 20여 작법을 선보인다. 동주 스님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조계사에서 영산재를 재현하며 조계종내 그동안 단절됐던 영산재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나비그리기는 수행과 같아요"

금강사 주지 대행 스님 개인전

검정색과 초록색으로 날개를 단장한 제비나비가 노랑나비와 호랑나비들 사이로 날갯짓하며 바위를 넘는다. 동식물원 의 풍경이 아니다. 천안 금강사 주지 대행 스님이 그린 화폭속에 있는 풍경이다. 스님이 달마도나 불화가 아닌 왜 나비를 그릴까?

대행 스님이 처음 나비를 그린 것은 50여년전, 우석 김기창 선생의 나비 그림을 보고 나서 시작했다. 눈일 발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며 지천으로 흔하게 보던 나비인데 고운 자태를 왜 못 봤을까 한탄했다. 그때부터 우석 선생을 좇아 그림을

배우는 한편 나비를 직접 따라 뛰어나며 크로키하고 나비 날개를 풀칠한 한지에 찍어 놓고 따라 그렸다.

"나비 그리기가 내겐 바로 수행입니다. 그림과 불교는 공존하는 하나지요.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년만에 개인전을 여는 대행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나비 그림외에도 '천마도' '연꽃' '관세음보살도' '십우도' '달마도'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나비그림에 선 세력의 정교함을, 달마도와 천마도에 선 수묵의 굵고 힘찬 필력을 만날 수 있다. (041)521-2851

김주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명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염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할라멘트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전선지출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당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2007 학년도 불교법패작법전수원 신(편)입생 모집

세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제, 49재, 사물(태정, 북, 목탁, 요령) 다루는법, 구명시식, 절안의식등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 포교사, 재가불자, 장차 출가를 계획하고 계신분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접수마감: 2007년 4월 30일 까지(전화접수 가능)

| 학과 | 수업일 | 기간 |
|------|---------------------------|-----|
| 기초반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15명선착순) | 6개월 |
| 법패반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시 (10명선착순) | 1년 |
| 재의식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6시 (10명선착순) | 1년 |

□원주교육장 - 개강:5월 3일 목요일 오전10시

| 학과 | 수업일 | 기간 |
|------|---------------------------|-----|
| 기초반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15명선착순) | 6개월 |
| 법패반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 (10명선착순) | 1년 |
| 재의식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6시 (10명선착순) | 1년 |

□춘천교육장 - 개강:5월 4일 금요일 오전10시

교육내용

- 기초반: 세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정, 각단불공 (강사:원각스님)
- 법패반: 종성, 거불, 현좌계, 가영, 선중경률, 안경이, 복장계, 향수나열, 안채비, 걸채비 (강사:도담스님)
- 재의식반: 천도제, 49재, 구명시식, 절안의식 (강사:도담스님)
- (내리줄) 요점바라, 관음바라, 회의제바라, 사타라나바라, 천수바라, 법교부(내리줄) 사방요신, 도량계, 다계, 운심계 (강사:자인스님)

▶ 구비서류: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준비물: 필기도구, 녹음기, 바라 1벌, 태정

불교법패작법전수원

(원주교육장)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원주시청 옆) ☎033)731-7759
 (춘천교육장)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춘천경찰서 옆) ☎011-269-416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부처님의 가르치로, 불자님의 기쁨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12677-5442
 소연구원 : 0321345-5411
 휴대 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